

카드업계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 어려워… 실효성 의문”

금리인하 요구 수용 공시 첫날

차주 한명이 금리인하 요구 중복 신용점수 변화 없어도 신청 가능성 이미 우대금리 받는 등 구분 어려워

이달부터 금융업권이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공시 항목만으론 예비 차주가 금리인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부터 대출을 진행하는 전 금융업권은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은 금리인하 수용률을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공시되는 내용은 ▲금리인하 요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이다.

카드업계에선 단순히 수용률만으로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금융권의 수용률이 공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리인하 수용률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한 명의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가 이뤄지는 최소 조건인 상환능력, 신용점수

등에 변화가 없더라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시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대한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률 제고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폭을 알 수 없는 것도 실효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신용점수 상승 수준이 차주마다 다르며 인상 폭 또한

금융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용점수가 600점에서 800점으로 오른 차주 A씨와 600점에서 950점으로 오른 차주 B씨의 신용 변동 수준은 다르지만, 각 구간별 금리인하 차이를 알 수 없어 차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와 급여가 상승했다라도 신용점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중·저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카드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 변화와 대출 상품에 걸맞게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신용 구간별 금리인하 폭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각 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 수용 포트폴리오가 상이하고 차주 유형도 천차만별이어서 신용점수만으로 금리인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리빙빙 등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경우 신용

점수 변동이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내부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용구간별 금리인하 폭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7곳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신한카드(74.03%) ▲우리카드(62.35%) ▲현대카드(45.81%) ▲삼성카드(40.35%) ▲롯데카드(40.15%) ▲KB국민카드(39.65%) ▲하나카드(28.05%) ▲비씨카드(11.92%) 순으로 비씨카드가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용률이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 비씨카드에서는 이미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수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씨카드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대출 사업을 본격화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대출 서비스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출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낮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금융사, ESG워싱 적극적인 대처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 국제콘퍼런스 참석 “ESG 공시방안 지속적 고민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금융회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를 공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 점검하겠다”며 “ESG 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 ECC에서 ESG 및 녹색금융을 주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금감원, 이화여대, KB금융그룹 등이 참석해 녹색금융 전망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ESG 금융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ESG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재확산될 수 있다”며 “ESG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2 금융감독원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SG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적인 것 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에 빗대 ESG

를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또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공시가 가능하도록 ESG 공시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SG 및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ESG 펀드 등의 상품 설명이 충분하지, 실제 운영이 공시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체계적인 ESG 공시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저축은행, 올 차주 3명 중 1명 ‘금리 인하’

3.8만여건 신청, 1.3만여건 수용 수용률 34.8%, 감면액 31.7억원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계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이 34.8%로 차주 3명 중 1명 수준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이자 감면액은 3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 신청 건수는 3만8568건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중 1만341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웰컴저축은행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페퍼저축은행(74.7%) ▲상상인저축은행(66.7%) ▲SBI저축은행(60.3%) ▲에듀저축은행(40.2%) 순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3만6500건 중 1만2529건 ▲기업대출에서는 2068건 중 881건을 수용했다.

저축은행 업계 또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기별 공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 돼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의견이다. 이에 저축은행 중앙회는 수용 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도 고려해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산 기자

IBK기업은행 유기동물 후원 캠페인

IBK기업은행이 지난 30일부터 i-ONE(아이원) 은행 내 유기동물 후원코너를 만들어 고객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후원 캠페인은 기업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아이원 앱 내 ‘유기동물 후원 코너’에서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업은행이 5000원을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대 6000만원을 목표로 매일 1회씩 참여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인 ‘동물자유연대’ ‘나비야사랑해’에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KBO 40주년 기념 대표선수 굿즈 선봬

신한은행-KBO, 팝업전시회 오픈

신한은행은 KBO와 함께 KBO리그 40주년을 기념해 KBO 대표 선수의 야구 용품과 40주년 기념 굿즈를 만나 볼 수 있는 팝업전시회를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팝업전시회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소문 디지털로브랜지에서 진행된다. 3040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KBO리그 40주년을 홍보하고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팝업전시회는 뉴트로 아트 워크를 대표하는 ‘조인혁 작가’의 일러스트 디자인을 활용해 제작한 기념 굿즈와 KBO리그 대표 선수들의 싸인 굿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팝업전시회를 방문하는 고객과 야구팬을 대상으로 ▲유명 선수 싸인 용품 ▲울스타 기념구 ▲신한 솔(SOL) 캐릭터 굿즈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KBO 관계자는 “지난 7월 M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성수동 팝업스토어가 성황리에 마쳤고 KBO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과 함께 직장인을 대상으



KBO 40주년 기념 팝업전시회가 진행되는 서울 서소문 ‘디지털로브랜지’의 모습. /신한은행

로 이번 2차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올시즌 KBO의 캐치프레이즈인 SLIDING TO YOUR LIFE에 맞춰 일상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KBO 리그를 계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KBO 타이틀 스폰서로서 디지털과 휴먼터치가 결합된 디지털로브랜지를 통해 야구팬에게 다가가고, 은행 고객이 야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즐겁고 혁신적인 경험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KBO 타이틀 스폰서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야구팬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카카오뱅크 주담대 금리 0.85%p 내려 연 3.2%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85%p 인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변경된 금리는 내달 1일 약정 건부터 적용된다.

먼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를 0.85%p 낮춰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연 4.05%에서 연 3.2%로 낮아졌다.

혼합금리 상품의 금리는 0.25%p 인하했다. 혼합금리 상품은 5년 동안 금리

가 고정되고 이후 6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연동금리를 적용해 변동되는 상품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혼합금리 대출상품 최저금리는 기존 연 4.71%에서 연 4.46%로 낮아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 고객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